

‘준비 끝’...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심도 최고조

코로나19 이후 최장기 정부 승인 국제행사 7개월간 대장정 개막식 이어 문화행사 ‘줄줄이’ 3회 이상 리허설...주차·교통·안전 이상 무

기후위기·지방위기 시대 미래도시의 표준을 제시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27일 재단법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에 따르면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의 모든 개최 준비를 마치고 31일 개막식과 4월 1일부터 화려한 개장이 시작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2013년 순천시가 최초로 국내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선보인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하는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공인 박람회로 순천시와 조직위는 그만큼 많은 공을 들였다.

2013년에 순천만습지 보존을 위한 에코벨트를 만들었다면(35만평 규모), 올해는 도심 깊이 정원의 영역을 넓혔다. 국가정원과 습지권역, 도심권역과 경관정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만 550만㎡(165만 평)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최장 기간 행사로 전 국민의 관심도도 높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봄을 맞이해 힐링과 충진을 원하는 관람객들에게 완전히 달라진 정원을 선보이기 위해 마무리 준비에 들어갔다.

◇ 박람회 전체 공정을 98% 달해, 5일 간 마지막 2% 완벽하게 채울 것

눈앞으로 다가온 정원박람회 전체 공정은 현재 98%에 육박한다. 2013년과 달리 ‘비움’을 키워드로 순천의 고유성을 담았으며, 주요 콘텐츠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리허설과 환경정비만을 남겨두고 있다.

열 가지 빅체인지 콘텐츠를 포함해 완전히 새로워졌다. 저류지 정원모델인 오천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 옛 해룡창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국가정원벚길과 정원드림호가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정원드림호는 3월 중순경 안전점검과 시운전을 마쳤다.

국가정원 권역에는 미래 정원의 모습을 보여줄 시크릿가든·국가정원식물원과 정원의 개념을 구성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꾼 가든스테이 ‘실랑계’가 있다. 폭발적 인기의 가든스테이는 24~26일 3일에 걸친 리허설에서 받은 피드백을 보완해 완벽하게 오픈 준비를 끝냈다. 도심과 정원에 걸친 15km 이상길도 마사토 정비 완료됐다.

야간경관은 지난 17일 노관규 시장을 필두로 점등 및 분수 연출 상황을 총 점검했다. 10년 전 일부 박람회장에 연출되었던 야간경관이 도심까지 확대돼 관람



노관규 순천시장이 27일 오전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5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석해 박람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류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는 남은 5일 간 화훼식재와 환경정비 등 막바지 디테일에 집중하며 마지막 2%를 촘촘히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선에 조성될 ‘물 위의 정원’은 개막식이 치러진 후 오픈 예정이다.

◇ 7개월간의 대장정 알릴 개막식에 이어 오감만족 문화행사도 ‘줄줄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3월 31일 오전 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동천 위 수상 무대에서 펼쳐진다.

참석 규모는 특별초청 대상자와 대국민 참여단을 포함 약 3만 명이며, 순천만 보존 스토리를 담은 개막공연과 K-POP 가수들의 축하공연(조수미, 박정현, 프라 우드먼 등)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박람회장은 4월 1일 오전 공식 개장식을 갖고 오전 10시부터 1호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정원에서 정원박람회가 열린다면,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심 곳곳에서는 오감만족 문화박람회가 열린다. 매주 금·토요일 저녁 오천그린광장에서는 박람회 공식 주제공연이 열리며, YB밴드 콘서트, 펜수팬미팅, 트롯한마당, 강변가요제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획공연이 매일 준비돼 박람회에 열기를 더한다.

또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어싱길 걷기, 요가·명상·태고 등의 웰니스 체험 콘텐츠가 수시로 개최되며 ‘매일 축제가 있는 박람회’를 목표로 월별 이색 페스타(반려견, 치맥, 호러 등)가 관람객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국제농업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정원박람회 기간에 순천에서 개최돼 전남권 전체가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노관규 시장은 “박람회와 연계한 행사들로 순천 도시에 800만 소비군을 끌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 3회 이상 리허설로 차질 없는 준비, 주차·교통·안전 관리도 이상 무

지난 3월 초 굵직한 공정을 마친 조직위는 3월 중세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실시한 바 있다. 최종 리허설인 25일에는 불특정 관람객 3만여 명이 모이는 개막 당일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각종 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복구 능력을 점검하고 앞선 리허설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즐거움 정원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식음판매 시설은 식당 9개소, 카페 8개소, 편의점 6개소를 포함해 35개 점포가 박람회장 내 입점해 있으며, 동·서·남문에 위치한 물품대여소에서 유모차와 휠체어, 보조배터리와 신발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반려인 1500만 시대에 걸맞은 반려동물 특화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정원 서문 입구의 ‘반려견 놀이터’는 전문가가 상주하며 최대 세 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 등록과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순천만습지에도 보호자 동반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해, 사람도 동물도 맘 놓고 즐기는 반려친화박람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휠체어나 유모차 운행도 불편함이 없도록 박람회장 곳곳의 턱을 제거하고 길을 정비하는 등, 누구에게나 열린 무장에 정원으로 조성했다. 주차시설은 공식 주차장 6개소와 임시 주차장 2개소를 포함해 1만여 면 이상

확보해 2013년에 비해 수용력이 대폭 늘었다. 임시주차장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국가정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조직위는 실시간 교통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차량 집중을 방지하고, 전시민 차량 2부제 운동을 펼쳐 교통 흐름을 원활히 관리할 예정이다.

24시간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입장객 수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피플카운팅 시스템과 안전 드론 운영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구역별 안전관리 책임제를 실시해 안전한 행사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코로나19 이후 최장기 정부 공인 국제행사, 전국민·정부 이목 집중

봄바람이 불고 곳곳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민의 이목이 4월 1일 정원박람회 개장에 쏠리고 있다.

800만 관람객 유치 목표는 정원박람회는 각종 업무협약과 유치활동으로 약 160만 명의 단체 관람객을 확보했다. 이중 전국 교육기관 유치 설명회를 전개한 결과, 방문이 협의된 108만 명의 교육기관 관람객 중 3만 명 이상이 개장 직후 박람회를 찾은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람객은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독일 선수단 학생 2천 명, 동남아 권역 6천여 명이 입장권 발매까지 마치는 등 약 10만 명 유치를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기준 입장권 판매 수익금은 57억 원으로 당초 목표인 5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여수와 광양을 포함한 전남 21개 지자체와, 포스코그룹, 파루, 여수MBC,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등 지역 유수 기업과 대학이 입장권 단체 구매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발 벗고 나선 덕분이다. 전국 기업, 단체, 개인 등의 기부 행렬도 이어져 후원금은 7억 원, 기부금은 15억 원 이상 달성했다. 개막 전부터 이미 수익 목표액의 32%를 확보한 상태다.

2000억 원 이상 투입된 기획재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도 지대하다. 지난 21~22일에는 전남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서울 광화문에 마련한 전남 방문의 해 페스티벌 행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원박람회 홍보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에 관심을 보이며 기회가 된다면 박람회장에 방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원박람회 그 너머까지, 세계적인 생태수도 향를 큰 그림

박람회를 총 감독·지휘한 조직위 노관규 이사장은 박람회가 1회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에 대한 밑도 있는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사후활용 방안도 꼼꼼히 수립하고 있다.

노 이사장은 “사후활용 용역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박람회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완벽하게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박람회 기간 집중되는 숙박과 인프라 수요를 인근 도시들과 연대해 분담하며 박람회를 전남 동부권 전체의 ‘잔치’로 확장할 생각이다.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낸 순천시는 박람회를 통해 다른 도시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남해안벨트 허브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박람회 이후 순천은 세계적인 생태수도 도약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린다. 해양 국가정원 조성, 국가정원과 도시를 잇는 가칭 정원가도 프로젝트로 정원도시를 완성하고, 친환경적인 대자보 문화를 정착시켜 도시 체질을 바꿔나갈 예정이다.

뉴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전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m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